유엔총회, 北인권결의 채택 … 15년째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15년째 전원 합의로 채택됐다. 북한 대사는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겨냥해 자신들의 인권 범죄나 되돌아보라고 맹비난한 뒤 탈북자 증언 등에서 드러난 각종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전혀 없었다" 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신문' 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으로,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

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는 입장을 밝혔었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 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북송된 탈북자들을 비롯한 정치사범들의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담겼다.

유엔 평화유지군, 아이티 소녀 성착취

극빈국 아이티에 주둔했던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 착취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 가 '뉴욕타임스' 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아이티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버려두고 간 수많은 아빠 없는 아이들이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새빈 리 영국 버밍엄대 교수 등 연구팀이 2004~2017년 아이티에 주둔했던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해 현지인 2천500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 예로 마리(가명)는 14살 때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다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아이티에 온 브라질 군인 미게우를 만나 관계를 맺었다. 미게우는 마리와 아이를 돕겠다고 말했지만 약속과 달리 브라질로 돌아간 후 소식을 끊었다.

임신 후 집에서도 쫓겨난 마리는 시급 25구르드(약 30센트)짜리 일을 하며 4살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브라질군, 유엔, 아이티 정부 누구도 마리 모자를 돕지 않는다.

마리 아들처럼 버려진 평화유지군의 아이들은 아이티에서 '프티 미누스타' 라고 불린다. '프티' (petit)는 '작다' 는 뜻의 프랑스어이고, '미누스타' (MINUSTAH)는 '유엔 아이티 안정화지원단' 의 약자다.

마리처럼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대가를 주고 관계를 맺거나 성폭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 평화유지군이 밥 한 끼를 주고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의 아이를 낳은 아이티 여성에게 500구르드(약 6달러)을 건네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버려진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아이티 여성은 생계를 위해 다시 평화유지군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아이티 주둔 평화유지군의 성적 비행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2007년 아이티에 주둔한 스리랑카 국적의 유엔 평화유지군 100여 명이 9명의 아이티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실이 2017년 AP통신 보도로 폭로됐다. 이들은 스리랑카로 귀환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멕시코 경찰, 하루 1.2명꼴로 피살

올해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의 폭력 등으로 희생된 경찰이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연합뉴스' 가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멕시코 경찰은 하루에 1.2명꼴로 피살됐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모두 435명이 살해돼 지난해 수치인 421명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레포르마는 전했다.

살해된 415명 중 219명 시 경찰이고, 178명이 주 경찰, 18명이 연방 경찰이었다. 연방 경찰 중엔 올해 창설된 국가방위대 소속 5명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멕시코시티 북서쪽 과나후아토주에서 가장 많은 64명의 경찰이 피살됐다.

레포르마는 인구 1천만 명당 살해된 멕시코 경찰 수가 32명으로, 미국(1명)이나 남미 아르헨티나(5명)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고 보도했다.

마약 카르텔의 강력 범죄가 잦은 멕시코에서는 중무장한 카르텔 조직원이 군이나 경찰을 공격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 10월에도 미초아칸 등에서 무장 괴한들의 매복 공격을 받아 경찰들이 잇따라 숨졌고 지난달엔 북부 코아우일라주에서 카르텔이 시청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여러 명의 경찰이 희생됐다.

현지 전문가들은 경찰이 충분히 무장하지 않은 데다 준비와 훈련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살해범 다수가 여전히 붙잡히거나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도 경찰 살해가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레포르마는 전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